

第36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3月28日(月) 11時10分 開式

第36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臨時會) 開會式順

1. 開 式
2. 國旗에 대한 敬禮
3. 愛國歌齊唱
4.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
5. 開 會 辭
6. 閉 式

(司會 議事係長 韓相殷)

(11時10分 開式)

○議事係長 韓相殷 지금부터 第36回 鍾路區議會 臨時會 開會式을 行해겠습니다.

먼저 國民儀禮가 있겠습니다. 壇上의 國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愛國歌 齊唱이 있겠습니다. 錄音된 전주곡에 따라 1절만 齊唱해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 齊唱)

이어서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이 있겠습니다.

(一同 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着席)

다음은 議長님의 開會辭가 있겠습니다.

○議長 李斗鶴 議員 同志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임시회의를 맞이함에 있어서 사전에 기원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議員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지 중의 한 분이, 李憲九議員이 오랜 지병인 척추수술을 해서 지금 꽤유 중에 있는데 하루빨리 우리와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여러분과 더불어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모로 일대 변혁을 맞

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나라의 정개법이 그 제정 선포 발효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정치 혁명을 기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남북관계가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어서 저희들의 의회 활동에 보다 더 정성을 다해야 될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갈구하고 있는 지방 자치법도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마는 여러분에게 기히 배부된 내용대로 중요한 저희들의 숙원의 일부가 반영되어서 금년부터 효력을, 지금부터 효력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도 참고해 주시고 다음 간담회가 있을 시간에 허심탄회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60일 회기가 80일로 되었고, 또 3일간의 감사 기일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7일 간이 되었고, 또 정기회가 35일로 또 그외 우리 의정활동에 있어서 요구가 있을 때는 그에 대한 관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보상제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외에 여러 가지 대통령령으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한 것이 대통령령으로서의 여기 법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의 시·도 의장 특히나 서울시 의장들이 현재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럭저럭 3년을 맞이하고 4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임기는 '95년 4월 14일 12시가 기점이 되고 있는만큼 '94년 4월 15일부터 정부가 정한 6월 27일에 제2대 선거가 실시될 날을 계산할 것 같으면 73일 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현재 오는 '95년 4월 15일로 기점을 해서 완전하게 원위치로 돌아가느냐 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 73일 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절대적으로 지방화 시대에 없어서는 안되는 사항인만큼 이 점도 전국의 의장단 의장들이 일부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컨대 우리가 앞으로 남은 임기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대외활동에 대해서도 정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외활동을 항상 사전 사전에 사실 유념있게 관찰하고 실제로 해야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의회활동도 보다더 사무국에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전문위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좀더 상임위원회별로 참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종로구의회, 구민이 바라고 있는 우리 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뭔가 참답게 그분에게 그분들에게 피부로 안겨볼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여러 의원들께서 공사 간에 바쁘시지만 각별하게 유념해서 우리 스스로도 초대 의원으로서 뭔가 보람찬 일을 남기고 그 결실을 맺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초대 의원답게 2대를 맞이하는 데 대한 참 뭔가 남기고 싶은 그러한 것을 최대한으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의회가, 우리 의원들이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개회말로 갈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議事係長 韓相殷 이것으로 제3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1時19分 閉式)